“생명나눔은 나와 자녀 위하는 불사”

생명나눔으로 함께 사는 세상

3. 연등회 전통문화마당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 현장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생명나눔실천본부는 5월 21일 서울 우정국로에서 진행된 전통문화축제에 참가, 장기기증희망등록 캠페인을 펼쳤다. 이사장 일면 스님도 부스를 지키며 시민들을 만나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생명나눔, 5월 21일 우정국로서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 홍보

단주 만들기 등 불교체험부스엔 시민 400여 명 참여로 큰 호응

일면 스님 시민 직접 만나 홍보 경험담 공유하며 감동 전하기도



생명나눔 홍보위원들도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본부의 사업을 소개하며 희망등록을 유도했다.



부스 한쪽에서는 단주와 연등 만들기 등 다양한 불교문화 체험활동이 펼쳐졌다.

활동을 펼쳤다. 한쪽에서는 장기기증 희망등록 상담이 진행됐고, 다른 한쪽에서는 연등회 취지에 맞춰 비즈 단주와 연꽃 만들기 등 체험공간이 마련됐다. 상담자에게는 텀블러와 손 선풍기, 가방 등 다양한 선물이 증정됐고, 체험공간에는 4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생명나눔 홍보위원들은 오전 일찍부터 홍보팻말을 들고 우정국로를 돌며 장기기증 희망드록과 환자 지원사업 등 생명나눔실천본부 사업 소개가 담긴 홍보 책자를 전달하는 거리 순회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 부스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상담을 펼치며 희망등록을 유도했다. 동국대 재학생으로 구성된 참사랑봉사단 자원봉사 10명도 거리 순회 캠페인뿐 아니라 체험공간에서 연꽃 만들기 도우미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희망의 씨앗이 그려진 팻말을 들고 적극적인 자세로 장기기장 희망등록을 외치는 봉사자들의 열정에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이날 희망등록에는 어르신 참여가 늘어 눈길을 끌었다. 장기와 안구, 조직 등을 고루 희망등록한 정석자 어르신(65)은 “각종 행사에서 희망등록 캠페인을 여러 차례 접했지만 마음이 크게 동하지 않았다”면서 “나이가 들수록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이 커지던 차에 오늘 희망등록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들, 딸과 함께 설명을 듣던 황진명 씨(42)도 “주말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 나왔다가 기분 좋게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하게 됐다”면서 “아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희망등록 신청서를 작성한 만큼, 추후를 대비해 몸을 더욱 소중히 다루는 생활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스님이 이사장으로 계신 모습을 보고 희망등록에 나선 시민들도 많아 눈길을 끌었다. 친구와 함께 연등회를 즐기러 나왔다가 희망등록했다는 윤지선 씨(29)는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단체이기에 더욱 믿음이 간다”면서 “간절한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하면 두려움보다는 기쁜 마음”이라고 말했다.

오후부터는 이사장 일면 스님도 홍보에 동참, 시민들을 만났다. 장기기증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기 위해 홍보활동에 나선 일면 스님은 자신의 경험담을 담담하게 설명해 시민들에게 큰 감동을 줬다. 1982년 간경화 판정을 받은 뒤 20년 가까운 투병생활을 한 일면 스님은 삶의 자락을 놓기 직전인 2000년 1월, 적합한 기증자를 만나 간 이식 수술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다. 이후 스님은 ‘이생의 인연이 다하는 날까지 새 생명을 다시 얻은 은덕을 갚겠다’ 는 서원을 세우고 2005년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으로 취임, 단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이라면 가장 먼저 달려가고 있다. 덕분에 취임 당시 2000여 명이었던 회원은 현재 15만여 명에 달한다.

이날 일면 스님은 시민들에게 “뇌사 시 장기기증은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일뿐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자손을 위하는 길”이라면서 “나눔이 사회에 실현될 때 사람들 마음과 영혼에 평화가 깃들어 이 땅에 불국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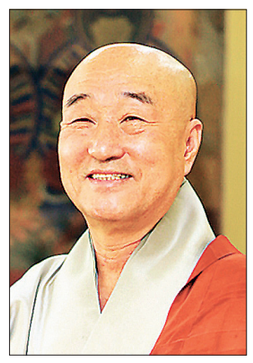
이날 캠페인에서 거리 홍보를 통해 장기기증을 권선해 시민들의 동참을 받아내는 데 일조한 이재필 동국대 참사랑 봉사단원(컴퓨터공학과2)은 “장기기증이라고 하면 생소하고 막연히 무섭게만 생각할 수 있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미 있는 행동을 부각시키는 홍보에 주안점을 뒀다”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의미 있는 봉사활동인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캠페인을 총괄한 김대욱 생명나눔실천본부 사무총장은 “많은 시민들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동참, 생명나눔운동이 불교계를 넘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질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생명나눔실천본부는 6월 6일 오전 10시 남양주 불암사에서 ‘제29회 생명나눔 천도재’ 를 봉행한다. 장기기증을 통해 생명나눔을 실천한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 불암산 호랑이 유격대원 호국영령들의 영가를 축원하고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자리로 진행된다. 인간문화재 전수자 초청 살풀이와 바라춤, 나비 춤 시연도 펼쳐진다. 02)734-8050

이사장 일면 대종사 봉축 메시지

행복을 추구하는 등불 밝히자



두산 일면
대한불교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불암사 회주

녹음이 짙어져 가는 산 아래 맑은 목탁 음이 울려 퍼지고, 색색의 연등이 아름다운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찬탄하며 각자의 꿈과 희망을 밝히고 자유와 평화가 깃든 부처님의 역사적인 탄생을 흥겹게 봉축합시다.

부처님 오신 날은 우리 불자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원력을 세우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다가올 미래를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진취적 모습이 참다운 불자의 자세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나눔과 이타행은 이웃을 위해 마땅히 행해야 하는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의무이고, 이웃이 고통받을 때 내가 나눔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오늘,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통해 부처님의 동체대비 가르침을 실천하시고, 밝혀진 연등 하나하나가 불자님들 가정에 행복과 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불보살전에 기원드립니다.



제29회 생명나눔 천도재

장기기증을 통해 생명나눔을 실천하신 분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
불암산 호랑이 유격대원의 호국영령들의 영가를 축원하고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합동 천도재를 봉행합니다.
신심있는 불자님들께서는 천도재를 통해 부모 · 형제, 인연 있는 영가 분들의 극락왕생도 기원할 수 있으니
많은 동참바라며, 모든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 시 2023년 6월 6일 (현충일, 화요일) 오전 10시
장 소 대한불교조계종 불암사 (경기도 남양주시)
행 사 인간문화재 전수자 초청 살풀이, 바라춤, 나비춤 시연
접수안내 문 의 | 생명나눔 (02)734-8050, 불 암 사 (031)527-8345
현장접수 | 불암사
접 수 비 | 영가 한 분당 2만 원
입금계좌 | 농협 053-17-001346 (입금 후 전화바랍니다)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이 사 장 일 면 / 후원회장 정명선화
대한불교조계종 불암사 신도회장 전보현자

제4차 생명나눔 홍보위원회 총회
| 일시 | 2023년 6월 6일 (화요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 대한불교조계종 불암사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위원회 회장 박종우 홍보위원회 사무총장 최상균